

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: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.guro3cc.com ☎ 사무실 857-8541~2 팩스 857-8549 부속기관 : 골별유치원 857-8545 요셉어린이집 857-8546	미사시간	주 일	토요일 주일 : 16:00 (유·초등부 소성전) , 19:00 06:30 (새벽), 10:30 (교 중) 10:00 (중·고등부 소성전) 12:00 (낮) 19:00 (청 년)
		평 일	06:30 (새벽), 19:00 (저녁), 목요일 10:00
		예비자 교리	일요일 오전 09시 / 화요일 저녁 8시
		유 아 세 례	토요일 오전 11시 (사무실 문의)
	연령회 총무	옥윤필 마티아 010-5117-5564	

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(2022. 3. ~ 2023. 9. 30)

● 알 림

- 9월 14일(수) 저녁 8시 본당 임원 모임이 식당에서 있습니다.
- 9월 15일(셋째주 목요일) 10시 시니어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.
- 9월 16일(금) 병자영성체(봉성체) 있습니다.
- 다음 주(9월 18일)는 헌미헌금 2차 헌금이 있습니다.
- 9월 21일(수) 11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.
- 10월 1일부터 보스코홀 장례식장을 재개합니다.
- 새벽 미사는 05: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.

● 회 의

- 사목협의회
 - 일 시 : 9월 22일(목), 19시 40분
 - 장 소 : 강당

● 모 임

단체명	일 시	장 소
울뜨레아	9월 18일(일), 11시 40분	강 당
1Cu	9월 18일(일), 12시	식 당
2Cu	9월 18일(일), 14시	강 당
3Cu	9월 18일(일), 13시	강 당
성령봉사회	매주 월요일, 19시 40분	1교실

● 예비신자 교리반 첫 모임

- 일 시 : 9월 18일(일), 11시 45분
- 장 소 : 1교실

● 교 육 / 강 좌

-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.
 - 주일반, 평일반
 -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

12시 미사 성가대원 모집

- 12시 미사에서 성가 봉사해주실 분을 찾습니다. 많은 신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연락처 : 권용란 세레나 010-9396-1397

*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*

-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(2022. 3. 3.)
- 지원금액 산정 : 본당 신자 수 × 10,000원
- 납부 기한 : 2022년 12월 31일까지
- ※ 8월 31일 현재 ₩12,870,000 납부되었습니다.

*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*

- (맛벌이 / 이주민 / 다문화 / 다자녀)
- 전액 무료, 저녁 식사제공
- 후원금계좌 : 신한 131-018-937372
(사) 국제청소년지원단

● 다음 주일(9/18)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

국수잔치	10월 예정	청 소	20구역
------	--------	-----	------

● 우리들의 정성(8월 31일 ~ 9월 06일)

교 무 금		8,137,000원
주일헌금		4,683,500원
박노덕10만원 장원재20만원 엄기자 5만원		
감사헌금	김옥순 5만원 이연순 5만원 지현주 5만원	
	김○○ 5만원 오명석20만원 김성만15만원	

●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

월 일	해 설	복 사		독 서	
9/11	구민서	오성환	도현만	김덕영	민옥경
9/18	이인옥	신종구	최상림	안상록	정재경

● 성체 분배자 명단

월 일	토요주일	06:30	10:30		12:00
9/11	김인기	박형순	최창열	황태영	박용환
9/18	박승환	오광운	김광수	김영배	최영만



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29-05-001894 예금주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
(※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.)

합의의 기반

206. 상대주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. 관용을 가장하여 상대주의는 결국 힘 있는 자들이 당장의 편의에 따라 도덕 가치들을 해석해 버리는 형태를 부추깁니다. 결정적으로 “우리 저마다의 욕망과 즉각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 외에 객관적 진리나 확고한 원칙이 없다면, …… 정치적인 조치나 법의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. …… 문화가 부패하고 객관적 진리와 보편타당한 원칙들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때, 법은 자의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거나 피해아할 장애물로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”

207.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깊은 실재에 응답하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? 성찰과 지혜의 기나긴 여정을 통하여 얻은 신념, 곧 인간은 누구나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라는 신념이 없으면 도대체 법이란 무엇입니까? 한 사회에 미래가 있으려면, 그 사회는 인간 존엄성의 진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.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이 아니라, 바로 신념 때문에 살인을 삼가게 될 것입니다. 이는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양심으로 받아들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. 사회가 진리 추구를 장려하고 기본 진리들을 따를 때, 매우 품위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회가 됩니다.

208. 공적 사적 영역에서 진리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은폐하는 다양한 형태들에 대하여 그 가면을 벗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‘진리’라 부르는 것은 언론 매체가 하는 사실 전달만이 아닙니다.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 법들의 바탕이 되는 더 확고한 토대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는 인간의 지성이 당장의 편의를 초월하여 어떤 변함없는 진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의미합니다. 이 진리들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. 이성은 인간 본성을 자세히 살피면서, 그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보편적 가치들을 발견합니다.